

# 쓰레기통 없는 학교

우리 학교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거리마다 사람이 모이는 데에는 어느 곳이나 필수품처럼 있기 마련인 쓰레기통이, 우리 학교의 교실이나 정원이나 운동장 구석진 곳마저도 없다. 그리하여 우리 학교는 「쓰레기통 없는 학교」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쓰레기통 없는 학교」는 어느 틈에 우리 학교의 몇 가지 안 되는 학교특색중의 한 가지로 끼여 들어서 지금은 전교생과 전교직원의 노력중점의 하나로 되기에 이르렀다.

학생들의 생활장에 쓰레기통 없는 불편을 주어 놓고 이 무슨 괴이한 장광설인고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소박한 기대가 담겨져 있다.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는 불가결하게 발생된다. 한 사람이 살면 한 사람의 생활찌꺼기가, 천 사람이 살면 천 사람분의 그것이 쓰레기가 되고 폐기물이 되어 나오게 마련인 것이다.

원시인들의 생활쓰레기 폐기장인 패총(조개무덤)은 그래서 문자 없는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살피는 고고학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지만, 오늘의 이 생활쓰레기는 폭발적인 인구증가에 고도 산업사회, 소비 지상주의의 현대생활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쓰레기무덤은 옛날의 패총은 아닌 것이다. 상전이 벽해가 된다더니 쓰레기덤은 이미 계곡을 메우고 바다를 메우면서 지형을 변화·변질시키기에 이르렀다.

산과 들, 거리의 후미진 곳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쓰레기들.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



趙大新 / 인천 용현여중 교장

옛날, 우리 농촌에서는 벗짚 한톨,  
 닝마 한올인들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었다.  
 비록 길가에 버려진 새끼 한올이라도  
 주워서 퇴비장에 던졌다.

기 뿐만 아니라 산업체에서 나온 산업체 폐기물들은 그 악취와 불쾌감은 말할것도 없고, 수질과 대기를 오염시키고 농작물을 비롯한 동식물까지 오염되어 끝내 인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몸서리를 치지 않을 수 없다.

쓰레기는 인간의 생활속에서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어쩔수 없는 폐기물이지만, 동시에 무절제 무책임한 쓰레기 폐기는 공기와 물과 땅을 찌르고 생태계를 파괴하여 드디어는 인간 스스로 인간을 죽이는 독성이 된다.

일반 생활쓰레기는 산업체폐기물이든간에 쓰레기는 이미 내 집, 우리 공장, 우리 직장 문밖으로 내버렸다 해서 끝난 일이 아니다.

그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수거하여 운반하고 다시 그것을 분류하여 처리하는 과정과 폐기장의 선정, 그리고 그 이후의 대책과정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휴지조각인들 함부로 버릴 수 있겠는가.

우선, 우리 모두 생활하면서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갈한 마음을 써야 하겠다.

옛날 우리 농촌에서는 벗짚 한 톨, 닝마 한 올인들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었다. 비록 길가에 버려진 새끼 한 올이라도 주워서 퇴비장에 던졌다. 우리는 그 어른들의 물자를 절약하는 마음, 폐품 재활용의 지혜, 그리고 그 정갈하고 매사에 외경(畏敬)하는 태도를 본받아야 하겠다.

환경청에서 보내온 교육자료에 의하면 우리들

이 무책임하게 버리는 폐기물에는 15%~70%의 귀중한 외화가 포함되어 있다한다. 어찌 휴지 한장인들 마구 버릴 수 있겠는가. 물자 절약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가급적 줄여야 되겠고, 폐품을 재활용하는 알뜰한 마음씨를 지녀야 되겠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 정신적인 기둥이 서있지 않고는 쓰레기의 저 무서운 독성으로부터 인간은 구제받을 길이 없을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 쓰레기통을 몰아낸지 어언 1년이 된다. 이제 어린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자기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자기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쓰레기장도 연소용, 재생용, 연소불가등으로 구분되어 그대로 잘 처리하게 되었다.

학교 환경도 전보다 훨씬 깨끗해졌고, 무엇보다도 모든 학생들이 점차로 자기일은 자기 스스로 하되 남에게 폐스러운 짓은 하지 않으며, 물자를 아끼고 매사에 근면하게 생활하는 기풍이 조성돼 가고 있음은 매우 기쁘고 흐뭇한 일이다.

오늘도 예쁜 어린 학생이 복도에 흘린 휴지를 스스로 주어서 호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보며 미래의 지구촌 환경을 낙관한다.

사족이지만 우리 학교 현관에 걸려있는 金九 선생의 말씀을 특히 첨기한다.

「나는 감옥에서 딸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빌었다. 우리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거든 그 집의 딸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하여 보고 죽게 하소서」\*